

《로마인 이야기-한니발전쟁》 제2권

한니발 전쟁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경영이론들

글 권영설(한국경제신문 가치혁신연구소장)

책의 덕목은 무엇보다 읽는 재미다. 침대에 누워서 읽다가 불도 끄지 않고 잠이 들 정도라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인터넷을 이기겠는가. 클릭 한 번에 영화 관도 열리고, 뉴스도 보이고, 사람들 속마음까지 엿볼 수 있는 인터넷과 경쟁해야 하는 책은 이제 '읽는 재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책을 쓰는 사람들 스스로가 재미있는 인물이 돼야 할 것이고, 그 일은 참 지난한 과제로 보이지만 말이다.

비교적 책을 가까이 하는 편이지만 내게도 재미있는 책은 역시 손에 꼽을 정도였다. 어릴 때 《삼국지》가 그랬고, 대학생 시절 김용의 《영웅문》 등 무협소설들이 그랬고 최근에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책이다.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회사에 들고 다니지 않고 집에 두었다. 책을 읽으려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마음까지 드는, 짜릿한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특히 나는 그 중에서도 제2권 '한니발 전쟁'을 읽을 때가 가장 좋았다. 어린 시절 편역된 《플루타르크 영웅전》에서 비운의 영웅으로 묘사된 한니발의 진면목을 이 책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영웅 스키피오와 벌인 세기의 라이벌전도 볼거리다.

이 책은 로마와 카르타고 간의 포에니 전쟁이 소재다. 그 중 2차 포에니 전쟁에 해당하는 '한니발 전쟁'이 이 책의 백미다. 무려 16년간이나 로마는 카르타고의 젊은 장군 한니발에게 휘둘린다. 그 사이 집정관만 5명이나 전사했다. 결국 스키피오의 등장으로 승리는 로마에 돌아가고 로마는 한니발과 싸우는 과정에서 얻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지중해의 패권국가로 우뚝 서게 된다.

《로마인 이야기》 중에서도 제2권을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전쟁 이야기가 주는 재미지만, 특히 경영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전쟁은 현대 기업경영에서 벌어지는 목숨을 건 경쟁과 큰 차이가 없다. 그 성공과 실패의 논리, 큰 맥을 이 책 곳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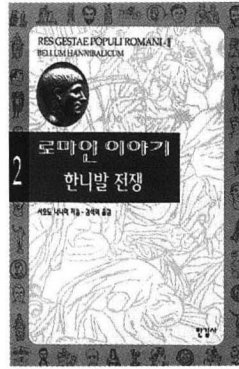
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경영이론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을 몇 개 짚어보자.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기존의 경쟁 논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남들이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적의 의표를 찌르는 전략과 전술로 한니발은 초기부터 기선을 제압했다. 한니발은 로마인이 상상도 하기 어려운 곳으로 쳐들어왔다. 코끼리 37마리와 수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었다. 그가 넘은 것은 산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고정관념이었다고 하겠다.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방향성, 즉 전략이라는 점도 한니발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그는 일희일비 하지 않았다. 연전연승을 거두면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가 즐기치게 추진한 전략은 로마라는 동맹체의 해체였다. 전투에서 이기면 로마 병사들은 죽이거나 노예로 팔았지만 로마의 동맹시나 동맹국의 병사들은 곱게 돌려보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장기전을 펼쳐야 하는 그에게는 새로운 동지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죽는 줄 알았다가 살아돌아간 동맹시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그의 노력은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16년간이나 전쟁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됐다.

한니발 부대가 강했던 이유 중 하나로 정보에 대한 투자를 빼뜨릴 수 없다. 한니발은 전장에서 싸우는 것 못지않게 정보전과 심리전에 많은 신경을 썼다. 반드시 정보를 확보하고 작전을 벌였다. 2000년도 훨씬 전의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정보는 지금처럼 빠르게 전달되지 않았을 뿐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훌륭한 가치를 주었던 것이다. 지금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경영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라는 것을 한니발에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은 그러나 결국 로마의 승리로 끝났다. 한니발을 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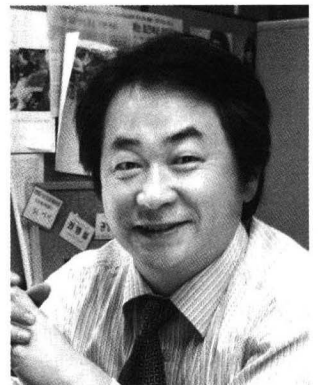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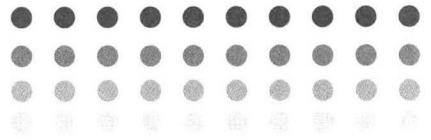
《로마인 이야기》제2권
시오노 나나미 지음 | 김석희 옮김 | 한길사 446쪽 | 값 11,000원

하면서 결국 한니발의 전략을 더 한니발처럼 익힌 스키피오라는 명장의 등장 때문이기도 했지만 크게 볼 때는 왕정과 공화정의 싸움에서 공화정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다. 한니발은 16년간 고국 카르타고로부터 이렇다할 지원을 받지 못했다. 로마의 해상봉쇄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기 나라에서는 영웅대접을 받지 못하는 인간들의 한계가 그에게도 그대로 있었던 것이다. 대신 로마는 임기 1년 짜리에 불과한 집정관들이 '대표'로 싸우는 한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6년간 그 시스템을 별로 무너뜨리지 않고 결국 승리했다.

두 영웅 한니발과 스키피오는 그러나 묘하게도 같은 해에 비장하고도 쓸쓸한 최후를 맞는다. 한니발은 카르타고의 재건을 꿈꾸다 결국 동족들이 죽이려하자 망명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망명지에서 로마군인들에게 체포되기 직전 독약을 먹고 자결한다. 스키피오는 정치적 경쟁자의 모함에 로마를 떠나 살다 시골의 별장에서 죽는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배은망덕한 조국이며, 그대는 나의 뼈를 갖지 못하리라” 였다고 한다. 둘의 최후를 보면 군인은 전장에서 죽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일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기업은 물론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다. 자신만의 황금기가 있는 것이고 그 황금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멋도 있고 보람도 있는 것이리라.

많은 경영자들이 즐겨 읽는 책에 《로마인 이야기》가 꼽힌 지는 이미 10여 년이 넘은 일이다. 이들을 '신세대' 경영자라고 부를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로마인 이야기》의 예화들이 《삼국지》 《손자병법》 등과 함께 많은 리더들이 단골로 인용하는 책이 될 것이 분명하다. 유비, 관우, 장비 3형제의 이름과 제갈공명과 조조가 맞붙은 적벽대전 등을 모르면 대화에 끼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고, 앞으로는 한니발, 스키피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면 낭패를 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역사만큼, 그것도 재미있는 역사만큼 좋은 경영서적도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추천**



● 이 글을 쓴 권영설은

현재 한국경제신문 가치혁신연구소 소장.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전문위원과 대한민국 혁신포럼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다.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MBA(전략전공)과정을 마쳤다. 경영혁신 전문가로 정부혁신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변명》(당신의 경제수명은 몇 년입니까?) 등의 책을 썼고, 《경영이란 무엇인가》(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혁신을 번역했다).